

햄릿 텍스트 속 유령 규정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중심으로

202021531 문화콘텐츠학과 김여진

<목차>

1. 서론
2. 유령 규정: 유령은 실재하지 않는 환각이다.
3. 환각에 선왕의 모습을 투시한 이유: 유령 등장 시점 기준으로
4. 유령을 햄릿의 정신작용으로 보는 관점에서 <햄릿> 재구성
5. 결론

1. 서론

첫 대사부터 “누구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햄릿>은 애매모호한 수수께끼의 세계이다. 햄릿이 정말 우유부단한 성격인지 또는 클로디어스가 정말 선왕을 죽였는지 그리고 거트루드가 정말 햄릿을 지키기 위해 독이 든 잔을 일부로 마신건지 등 ‘햄릿’의 세계와 관련하여 수많은 논쟁이 계속되지만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햄릿’ 세계의 불가사의함 덕분에 각기 다른 수많은 재해석이 나올 수 있었고 이 점이 ‘햄릿’이라는 고전을 현시대에서도 새롭게 읽힐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불확실한 ‘햄릿’의 세계에서 가장 규정하기 힘든 것은 ‘유령’일 것이다. 햄릿에서 유령이라는 요소를 빼면 극 자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령은 ‘햄릿’ 극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다. 또한 햄릿이 유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 극의 전체적인 흐름의 최종 종착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리포트에서 유령을 실제 유령이 아닌 환각이라고 규정하여 햄릿을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극 속에서 유령은 등장인물 모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햄릿’의 등장인물 중 대다수는 유령의 존재 자체조차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에 “왜 유령은 누군가에겐 보이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 햄릿 1막 1장과 4장에서 호레이쇼와 보초병 등 네 사람은 분명 유령을 육안으로 보았다. 하지만 3막 4장에서 햄릿이 왕비를 거칠게 비난하는 장면에서는 햄릿만 유령을 보았고 왕비는 유령을 보지 못했다. 또한 1막에서 호레이쇼와 보초병은 유령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은 1막 5장에서 유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유령과 대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햄릿뿐이지만 햄릿이 유령과 대

화하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유령이 실재하는 것인가. 유령이 실재했다면 모두가 유령을 똑같이 목격해야 하지만 유령은 등장인물들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자는 유령을 특정 등장인물들의 정신작용의 일환으로 환각에 각각의 의미를 투시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햄릿'을 재구성했다.

2. 유령 규정: 유령은 실재하지 않은 환각이다.

햄릿과 호레이쇼 그리고 보초병 등 다섯명이 비슷한 시간대와 같은 장소일 때만 유령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실제 유령이 아닌 환각이라고 볼 수 있다. 환각은 실제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유승희, 2016) 1막 1장을 보면 유령처럼 보이는 형상은 밤 12시를 조금 넘은 "정확히 죽음의 시각"에 엘시노아 성 위의 망대에서 나타났다가 수탉이 울면 자취를 감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필자는 유령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햄릿밖에 없고 그 외에 유령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없기에 우선적으로 유령을 시각적으로 인식한 것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점을 명시한다. '햄릿'의 유령처럼 보이는 형상은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들지 못하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나타난다. 1막 4장에 "혼령이 습관따라 나다니던 때"라는 표현을 보면 규칙적인 시간대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 가능하다. 필자는 이를 통해 그 시기 덴마크의 성 위의 망대에는 규칙적인 시간대에 갑옷을 입은 듯한 모양의 그림자나 달빛 등으로 인한 형상이 우연적으로 나타난 것뿐인데 이를 햄릿과 호레이쇼 그리고 보초병들이 선왕의 유령으로 투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1막 1장 중 덴마크 성 위의 망대에서 보초병 둘이 경비를 교대할 때 둘이 서로 목소리를 아는 사이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누구요?", "신분을 밝혀라" 등으로 서로가 누군지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늦은 시각의 망대는 시각과 서로의 목소리 만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국왕 만세"라는 구호를 정해서 경비 교대 상대를 인식해야 한다는 면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곳에 나타난 우연히 선왕의 모양을 한 듯한 형상을 충분히 선왕의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확신이 없는 태도를 들 수 있다. 1막에 유령을 목격한 인물들은 "그게 선왕 같지 않던가?", "지난밤 그분을 뵈는 것 같습니다.", "왕자님의 부친 같은 형태" 등의 어투를 사용한다. 어투들의 공통점은 "~이다'의 사실임을 확신하는 말투가 아닌 "~같다'의 확신 없는 어투로 선왕의 유령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형상이 선왕의 유령임을 명확히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호레이쇼는 유령을 본 후에도 1막 1장에서 마셀러스가 유령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렇게 들었고, 일부는 믿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2막 2장에서 유령과 유일하게 대화를 나눈 햄릿조차도 "혼령은 악마일지도 모른다"고 유령을 의심한다. 필자는 이를 실재하는 유령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감지한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보이는 형상이었기에 불확

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았다.

3. 환각에 선왕의 모습을 투시한 이유: 유령 등장 시점 기준으로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왜 모두 형상에 '선왕의 모습'을 투영한 것일까. 앞서 필자는 유령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환각 즉 정신 작용이라고 보았다. 라캉(Jacques Lacan)에 의하면 정신분석 관점에서 '환각'은 주체와 타자가 '실재계'의 영역에 속하며 주체의 의지에 의해 무의식을 표출한다고 한다. (김준교이고은, 2013) 즉 '햄릿'에서 선왕 유령에 의한 공포의 분위기는 특정한 형상에 선왕의 모습을 투시한 주체들의 무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유령을 시대적 또는 내면적 불안과 우울에 의한 정신작용으로서 나타난 환각이라고 보았다. 2막 2장에서 햄릿은 "혼령은 악마인지도 모른다"며 "악마는 제 모습을 보기 좋게 위장할 힘이 있지, 내 허약함과 우울증을 빌미 삼아, 심기가 그럴 땐 악귀가 큰 힘을 쓰니까"라고 한다. 필자는 이 대목을 뒤튼린 시대로 인해 우울증이 있는 햄릿의 내면 속 악마가 선왕의 모습을 한 환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첫번째로 유령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유령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는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유령이 나타난 시점은 햄릿 선왕이 죽고 클로디우스가 집권한 시점이다. 유령이 나타나기 직전에 햄릿 1막 1장에서 보초병들의 "모질게 추워"와 "마음이 울적해"라는 표현 등으로 덴마크에 외적인 시련이 닥쳤음을 보여준다. 유령을 목격한 후 호레이쇼는 유령을 "이상한 사건이 터질 징조" 또는 로마의 예시를 들며 "운명에 앞서오는 무서운 사건의 전조이자 전령"이라고 인식한다. 즉 클로디우스가 집권한 덴마크의 상황이 재난의 서막이라는 것을 인지한 보초병과 호레이쇼는 나라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그 공통된 감정의 정신작용으로 선왕의 모습을 한 환각을 본 것이다. 환각이 선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현왕의 통치에 불만이 있는 보초병과 호레이쇼의 마음 속에 선왕이 다스리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선왕의 모습을 환영에 투시한 것에는 보초병과 호레이쇼의 선왕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무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반대로 현 시대에 별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트루드와 클로디우스는 현 정권에 불만이나 불안이 없어서 덴마크 성 위의 망대에 형상이 나타나는 시간에 갔다 해도 그 형상을 선왕의 유령으로 투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번째로는 햄릿의 내적 상태의 관점으로 유령이 나타난 시점을 활용하여 선왕이 햄릿만 유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호레이쇼와 보초병들과 햄릿은 현 덴마크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어 유령에 선왕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투시했다. 하지만 호레이쇼와 보초병들은 유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햄릿만 대화를 할 수 있다. 유령이 나타나기 전 1막 2장의 "약한자여 니 이름은 여자로다", "허나 가슴은 터져라 입은 닫아야 하니까"라는 대사가 나오는 햄릿의 독백에서 햄릿이 유령을 만나기전에도 이미 어머니의 근친상간만으로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령이 나타난 시점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시기다. 따라서 햄릿이 본 유령은 현 덴마크에 대한 불안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근친상간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선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일환으로 동경과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었던 선왕이 죽고 드디어 혼자가 된 어머니가 바로 삼촌과 혼인을 하자, 그동안 햄릿 내면에 억압되었던 정신작용이 자신이 동일시하고 싶은 선왕의 모습을 한 환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유령은 햄릿에게 어머니의 남편을 미워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햄릿의 욕구의 모습으로 햄릿에게 대화를 건 것이다.

햄릿의 욕구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5막 1장에서 “난 덴마크 왕 햄릿이다” 라고 실언한 것으로 보아 햄릿의 무의식 속에는 선왕이 죽고 나서 본인이 덴마크의 왕이 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막 1장의 광대와의 대화로 볼 때 햄릿의 나이는 서른살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클로디어스가 거트루드와 혼인하여 왕이 됨으로서 햄릿이 왕이 되는 시기가 더 늦어졌음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거트루드에 대한 욕구이다. 3막 4장에서 햄릿은 클로디어스의 거트루드의 관계에 대한 성적인 어휘를 남발하며 거트루드에게 감정조절을 못하는 수준으로 화를 내는데, 이 장면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반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개념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질투심을 거론하며 햄릿이 삼촌 클로디어스에 대한 복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클로디어스의 행위를 심중에 품었었다는 희미한 기억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클로디어스에 대한 복수를 연기하는 것은 그가 유년기에 품었던 부친 살해와 친모와의 근친상간에 대한 억압된 소망 때문이다. (양석원, 2009) 햄릿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여성 혐오와 아버지인 햄릿 선왕에 대한 과도한 존경으로 이어진다. 세번째는 햄릿의 진실을 추구하는 욕구이다. 1막 2장에서 햄릿은 “보이는 건 모릅니다” 며 “제겐 겉모습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햄릿이 늘 보이는 외양에 묻힌 보이지 않는 진실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독사에 물려 사망한지 얼마 안돼 바로 결혼식이 올려지는 “보이는” 상황을 보고 햄릿은 그 내면의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 추궁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의 특징은 비가시적인 “유령”의 특징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햄릿 무의식 속의 왕위 욕구와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진실 추구의 욕구가 선왕의 모습을 환각에 투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선왕의 모습을 한 유령은 햄릿의 세가지 욕구가 모두 반영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4. 유령을 햄릿의 정신작용으로 보는 관점에서 <햄릿> 재구성

유령을 ‘햄릿’ 세계의 등장인물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실재하는 존재라고 보았을 때와 필자와 같이 유령을 햄릿의 정신작용이라고 보았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유령의 명령에 있다. 유령이 실제 존재한다면 유령의 명령에는 등장인물들의 욕구가 아닌 유령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다. 유령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유령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유령의 명령

엔 유령이 자신을 선왕이라고 주장한 바 선왕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령을 햄릿의 정신작용에 의한 환각이라고 규정한다면 유령의 명령과 행동은 모두 햄릿의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1막 3장에서 햄릿은 아직 유령을 보기도 전에 “아버님의 혼령이-무장하고! 추한 짓이 의심된다. 어서 밤이 왔으면. 그때까진 조용해라 내 영혼아. 악행은 천길만길 파묻어도 사람 눈에 발각되리” 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유령을 보기도 전에 유령의 명령을 이미 들은 사람처럼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이미 햄릿은 유령을 만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죽음엔 사실 클로디어스의 추한 짓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클로디어스가 아버지의 죽음에 악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감정을 유령이 “실제”로 만들어 줄 것을 예상한 사람처럼 유령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햄릿의 욕구 속에 이미 유령을 만나기도 전에 어머니와 왕위를 차지한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를 실현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욕구가 환영에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모두 얻은 선왕의 모습을 투영하여 클로디어스를 죽일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1막 5장의 유령의 대사에서 “독사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음을”과 “왕비의 욕망을 얻어냈다”에는 햄릿의 무의식 속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햄릿’ 극 자체는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하라는 선왕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왕위와 거트루드를 앗아간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싶은 햄릿의 욕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재해석될 수 있다.

또한 유령의 명령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바로 1막 5장에 “네 마음을 더럽히거나 네 어미에 대한 계책을 꾸미진 말아라. 그녀는 하늘과 가슴에 박혀 자기를 쏘시고 찌르는 가시에 맡겨둬라”라는 대사이다. 복수하는 와중에 어머니는 건들지 말라는 조건이 햄릿의 내면적 갈등을 야기한다. 이를 선왕의 발언이라고 보면 자신을 죽인 동생과 바로 결혼한 아내를 왜 보호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유령을 햄릿의 정신작용이라고 규정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햄릿의 욕구가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햄릿이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싶지만 본인은 살인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싶은 욕구가 “네 마음을 더럽히거나”에 반영되었다.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일환으로 어머니를 해치기 보다는 차지하고 싶은 욕구와 오랜시간 억압된 자신의 콤플렉스를 외면하고 삼촌과 바로 결혼한 것에 대한 미움이 “네 어미에 대한 계책을 꾸미진 말아라. 그녀는 하늘과 가슴에 박혀 자기를 쏘시고 찌르는 가시에 박혀둬라”에 반영됐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유령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힘든 불확실한 존재이다. 이런 불확실함은 사실 햄릿 극 전체 세계의 전반적인 속성과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햄릿의 세계는 확실한 답이 아닌 불확실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입부가 ‘누구나?’로 시작하고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왜 죄인들을 낳고 싶어하는 거요?’ ‘알렉산더 대왕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이런 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등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햄릿 세계 외부의 독자들도 햄릿과 같은 고뇌의 세계로 끌어당긴다. 또한 불확실성은 극 전체뿐만 아니라 극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는 유령의 명령과도 연

결된다. 유령은 햄릿에게 선왕 살해의 비밀을 밝히며 정의를 실현하라고 햄릿을 일깨운다. 하지만 유령이 명령한 정의는 그 자체로 불확실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형을 살해한 불의를 저지른 클로디어스의 행동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햄릿도 삼촌인 클로디어스를 죽이는 불의를 저질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로디어스를 살해하고 나서도 복수가 성공한 결말조차 정의라고 확신할 수 없다. 거의 모두가 다 죽는 파국의 결말이고 심지어 나라마저 노르웨이에게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햄릿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닌 사적 복수를 실현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정의실현조차 불확실하다. 이런 불확실한 햄릿 극 자체와 햄릿의 정의 실현을 향한 여정은 모두 존재조차 불확실한 유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령이라는 장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햄릿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된다. 필자는 유령을 존재하지 않는 햄릿의 정신 작용에 의한 환각이라고 보고 햄릿을 재해석해봤다. 하지만 누구나 얼마든지 본 리포트와 다른 유령 규정으로 햄릿을 재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햄릿의 불확실한 특징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더욱 풍부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동된다.

참고 문헌

김준교, 이고은. (2013). 이상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환각이미지. "한국디자인포럼" (페이지: 7-16). 한국디자인트렌트학회.

양석원. (2009). 햄릿과 정신분석: 프로이트, 랑크, 존스. (페이지: 93-120). 한국비교문학회.

유승희. (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